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9% 수준...기업 클수록 격차 커

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발표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난해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 근로자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5% 이상이지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한 다른 3개 보험은 56~72% 수준에 그쳤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에 이같이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전국 3만3000개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97만명의 지난해 6월 급여를 기준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시급 1만3053원 vs 정규직 1만8835원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

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3053원으로 정규직 1만8835원의 69.3%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차(66.3%)에 비해서는 3.0%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비정규직을 세분화해서 보면 기간제 근로자(1만2878원), 단시간 근로자(1만5804원), 파견 근로자(1만1670원), 용역 근로자(1만492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임금이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901원) 시급은 정규직(1만2269원)의 88.8% 수준. 5~2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3426원) 시간당임

금은 정규직(1만6754원)의 80.1% 수준으로 나타났다.

30~299인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3639원) 시간당임금은 정규직(1만9601원)의 69.6% 수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1만9996원) 시급은 정규직(3만704원)의 65.1%에 불과했다.

극단적으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1만901원) 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3만704원) 근로자의 35.5% 밖에 되지 못하는 셈이다.

근로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183.1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1.6시간 감소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2.7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2.6시간)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반면, 단시간근로자(82.1시간)는 이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정규직 4보험 가입률 55~69% 수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낮았다.

정규직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98.0% 였지만 비정규직은 58.1%에 불과했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은 94.7%, 비정규직은 68.7%에 불과했고,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정규직은 97.8%, 비정규직은 54.9%로 나타났다.

4대 보험중 산재보험 가입률만 정규직(97.8%)과 비정규직(96.8%)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적용률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상여금을 받는 정규직은 64.0%였지만, 비정규직은 22.5%에 그쳤다.

비정규직중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는 절반정도(47.9%)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2.0%), 용역근로자(22.4%)는 상여금 적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력 높을수록 연봉 많아져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1만4519원, 고졸은 1만2334만



중기 비정규직 1만901원vs대기업 정규직 3만704원

업종별 임금 전기가스 > 금융보험 > 교육서비스 順

비정규직 4보험 가입률 55~69%...정규직 95% 이상

원, 전문대졸은 1만3964원, 대졸은 1만8799원, 대학원졸은 3만191원으로 조사됐다.

대졸 근로자를 100%로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원졸은 159.6% 수준, 중졸 이하는 55.6% 수준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임금은 8177원, 20~29세 근로자는 1만1377원, 30~39세 근로자는 1만5915원, 40~49세 근로자는 1만7643원, 50~59세 근로자는 1만6701원, 60세 이상 근로자는 1만3119원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7533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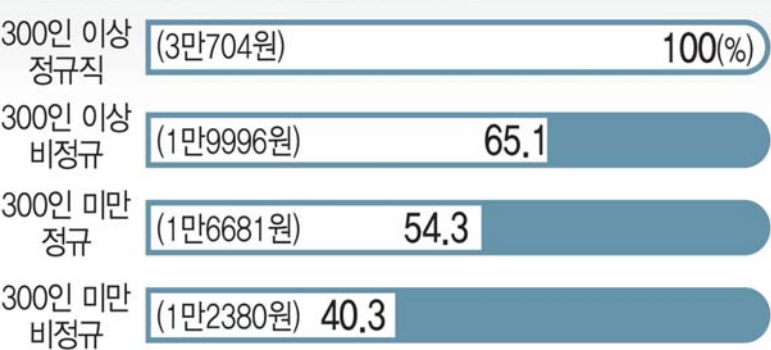
남성의 69.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중기·수도업이 2만881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보험업(2만3211원), 교육서비스업(2만2939원), 전문과 학기서비스업(2만1984원), 출판영상통신업(1만9951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수준 단위:%



자료: 고용노동부

정규직·비정규직 급여 격차 50대에 최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50대에 가장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7년 6월)'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소정 실근로시간)는 8177원, 20대 근로자는 1만1377원, 30대 근로자는 1만5915원, 40대 근로자는 1만7643원, 50대 근로자는 1만6701원, 60세 이상 근로자는 1만3119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20대(9969원), 30대(1만4208원), 40대(1만4856원),

50대(1만4119원)로 연령별 증감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규직은 20대(1만2041원), 30대(1만6219원), 40대(1만8280원), 50대(1만7665원)으로 퇴직 연령 전까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를 오래 다닐수록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30대가 가장 작고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6219원, 비정규직은 1만4208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7.6% 수준을 받는 것이다.

40대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8280원, 비정규직은 1만4856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81.3% 수준이다.

50~59세 정규직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7665원, 비정규직은 1만4119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79.9%를 받는 셈이다.

60세 이상 구간의 경우 정규직 임금(1만4118원)이 크게 감소하면서 비정규직(1만1997원)과 격차가 85.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40대 들어 정규직의 임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격차가 확대되고 50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